

박숙자(서강대)

이 연구에서는 1987년 국제저작권조약가입(UCC) 이후 출판문화의 변동과 전환을 진단하며 87년 이후의 민주화 국면과 세계화 담론이 연동하는 지점을 분석합니다. 1980년대 독서문화의 비약적 성장과 결부된 1990년대 출판계의 변화, 이를테면 인문사회과학 서적 중심으로 비평 담론을 생산하던 창작과비평사가 1991년 『동의보감』으로 베스트셀러 출판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어떤 ‘전환’의 단적인 풍경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연결시킵니다. 첫째, 민주화 담론과 인접한 세계화 논리의 맥락, 둘째 1988년-1994년 출판 관련 저작(출판계 인사)에 대한 탄압과 출판 시장의 변화 등입니다. 이 과정에 매개변수로 놓인 ‘국제’ ‘저작권 협약’은 ‘출판 문화계’ 내외부의 동상이몽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지하듯, 1980년대 독서 문화의 양적, 질적 확대가 그 ‘이후’ 우리 지식, 교양, 문화의 장에 미친 영향, 즉 1990년대 이후의 출판 및 독서 문화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987년 국제저작권협약(UCC)¹⁾ 가입이 ‘한국 지적재산권 역사의 새 기원이 된 것’을 상기할 때 1980/1990년대 출판문화의 ‘전환’에 놓인 여러 변수를 입체적으로 살피는 일은 현재 한국 지식장(독서문화, 출판문화)의 변모를 이해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의 논지에 동의하지만 논문의 기본 전제와 가정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가 ‘세계화’와 병진”되었다는 전제 하에 “80년대의 한국에서는 세계화의 압력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선진국을 열심히 추종해 온 한국인의 태도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는 ‘누구’의 민주화이며 세계화 역시 ‘누구’의 논리인지 다시 묻고자 합니다. 1985년 국제 저작권 계약 관련 논의는 그간 GATT²⁾에서 다루지 않은 농산물, 저작권 등을 자국(미국)의 자본 확대과 이익 보전을 위해 제3국에 강요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통치 권력은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파악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을 해결하는 합리화 기제로 ‘민주화’, ‘세계화’를 국제저작권 협약 체결을 위한 논리로 차용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외교 실패’나 ‘무능’이 아니라 ‘체제내화’된 정부와 중산층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단일하게 이해하기보다 각각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1987년 국제저작권협약 조항에도 없는 복제물의 10년 소급 적용을 거의 유일하게 수용한 나라가 한국이었으며 한국의 출판계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복제물에 기초한 출판사 도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UCC 전후에 ‘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그 이후의 논의가 좀더 심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출판계가 ‘국제저작권협약’에 대처하는 태도와 방안 역시 ‘출판계’ 전체가 단일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저작권 협약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와 학술 분야입니다. 미국 역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적 출

1) 국제 저작권 협약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판'의 오명을 받지만 국제저작권협약에 참여하지 않다가 자국의 저작권 이익이 예상되자 제 3국에 저작권 가입을 독촉합니다. 다시 말해 '해적 출판'은 제1국의 겁박의 용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국 출판의 고질적 병폐로 '해적 출판'이라는 말을 그대로 수긍하며 자임하는 것, 혹은 그런 '낙인'을 현실 논리인 양 수용하는 것은 한국의 출판 윤리를 성찰하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1970-80년대 독서문화와 교양의 성장에는 '지식의 공유'를 체화한 역사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 안에 놓인 고질적 병폐와 악습, 관행이 있지만 동시에 이를 성찰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국제저작권계약' 장에 선택, 적응하며 굴절, 변모하였습니다. 1970-80년대 '지식 공유의 역사' 안에 동시에 놓인 '좌파상업주의'와 '사회과학책 독서', '해적출판', '독서문화의 양적 증대' 등은 1990년대 이후 '좌파'와 '상업주의'로, '교양서'와 '전문서'로, '영세 출판사'와 '대형출판사'로 이분화, 양극화되었습니다. 출판계가 공히 분유하고 있던 '체제내화'의 가능성이 현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내부의 미묘한 차이를 다시 한번 물어야만 1990년대 출판 문화 저류에 놓인 또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